

##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이해’

양 영 자

(경남대학교)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에이전시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8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ü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중적 소외자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관점과는 달리,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주 생활영역인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가정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작동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데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제결혼(농촌)남성, 에이전시, 초국가적 가정,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생애사적 사례이해’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외부자적 시각에서 재현된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노출되고 있는 다중적 소외집단이다. 따라서 결혼 이전의 이들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초래한 낙오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즉 유교적 가부장제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초래된

왜곡된 성비,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여성의 결혼시장 이탈로 인한 신부부족 현상, 배우자의 경제력을 선호하는 여성의 결혼성향 등(엄명용, 2010: 262-263; 정현주, 2009: 113; 박경동, 2007: 123-124; 박재규, 2008: 150-151)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국 여성과의 결혼에 이르지 못했던 낙오자로 주변화되는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들은 이러한 낙오자의 이미지에 더해, 가부장적 가정의 폭력자나 범죄자<sup>1)</sup>처럼 위험한 이미지로까지 재현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허울뿐인 가부장적 가정(윤형숙, 2005), 원치 않는 섹스를 강요하는 배우자 강간범(보건복지부, 2005),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최금해, 2007; 박현정, 2004;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심지어는 배우자를 자살로 내몰거나 죽이는 살인범<sup>2)</sup>으로까지 낙인화하는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주체가 아닌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로서 객체화, 타자화한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외부자적 이미지의 특징이라 하겠다. 요컨대, 외부자적 관점에서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결혼 이전에는 사회적 낙오자였고, 결혼 이후에는 글로벌적 가해자라는, 양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양가적이고 부정일변도의 이미지는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들에서는 지배자의 이미지가 부가되어 더욱 강화된다. 특히 구조주의적 페미니즘 연구들은 '이주의 여성화(Feminisierung der Migration)<sup>3)</sup>(Piper, 2004; Castles and Miller, 2003; Piper and Roces, 2003; Parrenas, 2001; 김현미, 2006; 재인용)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은 세계화와 상업화로 인한 매매혼의 희생자들로, 그리고 남성들은 이들 여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지배자로 규정(정현주, 2009: 114; 한건수, 2006: 196-197)하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에 이러한 양가적이고 이분법적인 부정일변도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연구가 편중적임을 인식한 연구자들에 의해,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노력들(엄명용,

- 1) 한건수(2006: 197-198)는 이와 같은 사회·병리적 이미지가 재현된 것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극단적인 인권침해나 가정폭력과 같은 긴급한 사례에 집중하는 우리 사회 언론과 여성단체들의 대응책 및 시민단체나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개입과 연구의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의 배우자인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낙인화도 가속되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올 7월 8일 결혼 7일 만에 정신 병력이 있는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텃티 황옥의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론이나 기관들의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인해, 전체 국제결혼남성들이 마치 예비살인자 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주는 교훈은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국가적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재확인·실행토록 촉구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혼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의무화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시화한 국제결혼중개관리법(2008년)의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 3)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는 인구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돌봄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수발, 성적 친밀성을 위해 국경을 넘는 젠더선별적인 이주 과정, 즉 '성별화된 이주방식'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는 패턴이 보이는 불균등한 공간이동의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정현주, 2009: 111; 김현미, 2006: 13-17).

2010; 김민경, 2009; 이근무·김진숙, 2009; 최지영, 2009; 채옥희·홍달아기, 2008)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부정일변도의 이미지는 여전히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 재고시키고 있고, 주체성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라는 대상화, 객체화된 관점에서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주체성, 즉 '에이전시(agency)'<sup>4)</sup>에 주목한 연구로써,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국제결혼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되고 있는 여성들의 에이전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행위자성에 주목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페미니즘 연구(Constable, 2003; Piper and Roces, 2003; Sassen, 2002; 정현주, 2009; 재인용)들은 국제결혼이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과 가족관계를 생산해내는 기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대 대안적 결혼형태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세계화와 상업화의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주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은 '공간적 승격혼(spatial hypergamy)'을 위해 자국의 경계를 넘어, 수용국의 시민권까지 획득하고, 친정식구를 부양하는 글로벌 시대 여성가장이며, 초국가적 가족관계망을 형성하여 다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시키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below)'<sup>5)</sup>를 주도하는 전지구적 행위자일 수 있다

- 4)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에이전시는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여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차별화된 경험'을 의미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가들에 의해 재조명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에이전시는 구조와는 대립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조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에이전시는 교섭능력이나 행위주체성, 행위자성으로 번역되거나 원어 그대로 사용(정현주, 2009: 110; 박신규, 2008: 52; 한건수, 2006: 198-200; 김현미, 2005)되고 있다.
- 5) 문경희(2006: 68)는 다문화주의가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국민통합 이데올로기, 운동의 목표 등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수한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태동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김현미(2008)는 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NGO 등이 한국의 단일문화주의의 폭력성에 대항하고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었는데, 국가에 의해 '차용'되면서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협소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으로서, 법적 지위가 확실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이주자들만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실제 다문화주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자 간의 계층분화와 차별화를 가속화시키는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수용국가와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Smith와 Guarnizo의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Smith and Guarnizo, 1998)에 근거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에 의해 재조명된 개념이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등을 통해 출신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주국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늘날 이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초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글로벌시대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며,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이다(양영자, 2010; Smith and Guarnizo, 1998). 그런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

(Constable, 2003; 정현주, 2009; 재인용)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주의적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국제결혼여성의 주체적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결과들을 보고함으로써, 국제결혼주체를 객체화, 타자화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에이전시를 분석한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동일한 존재로 보거나 혹은 특정 이미지로 덧씌워 '그들'로 타자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들의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현주, 2009: 110; 박신규, 2008: 52; 김현미, 2005)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에이전시를 연구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 지니는 모순성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협상하는 억압의 생존자이며 동시에, 변혁자로서의 주체성을 이들의 내부자적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한 남성들, 특히 '농촌총각'으로 대변되는 농촌지역 남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에이전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노출되고 있는 소외집단이라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에이전시에 주목한 내부자적 관점에서 재현된 이미지는 이러한 외부자적 시각에서 재현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또한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에이전시는 과연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을까? 즉 이들은 어떠한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약에 어떻게 대처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주체로 하여 이들 삶의 궤적을 내부자적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이들의 에이전시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에이전시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내부자적 접근에 의해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국제결혼한 농촌지역 남성들의 에이전시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부재하나, 도시지역 남성들까지 포괄하는 국제결혼남성들 전체의 주체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소수(엄명용, 2010; 김민경, 2009; 이근무·김진숙, 2009; 최지영, 2009; 채옥희·홍달야기, 2008) 존재한다. 이에 이를 에이전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흐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으로 객체화, 대상화하는 현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출발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부분적인 수준에서만 탈피함으로써, 주체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 경우(엄명용, 2010; 채옥희·홍달야기, 2008)이다. 엄명용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주체성을 분석함으로써

---

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윤인진(2008)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혹은 '풀뿌리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이에 대비되는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에 대한 편중된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고자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보듯, 여전히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배우자들의 주변화된 삶이 국제결혼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는 중앙으로 이동되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주체성과 관련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 남편’이라는 객체화된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한 문제점도 보였다. 그리고 채옥희·홍달아기도 ‘결혼이민여성’은 피해자로, 그리고 ‘한국남편들’은 가해자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남편’의 피해사례를 통해 기존에 보고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갈등들을 역검증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사례’의 ‘남편들’에 제한시킨 연구로 인해 객체화된 관점에 고착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입장에서 재현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예컨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고, 폭력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남편들’의 시각에 의해 일정 부분 재고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객체화된 관점에서는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주체성보다는 오히려 타자성이 부각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둘째, 국제결혼한 남성들 자신을 주체로 한 연구로서, 객체화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주체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경우(김민경, 2009; 이근무·김진숙, 2009; 최지영, 2009)이다. 김민경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부부되기 과정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소통의 단절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가족생활의 주체로서 위치해 있음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통합주체’(김민경, 2009: 181)라는 역설적인 용어사용이 보여주듯, 이들을 지역사회의 통합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관점으로부터는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도 노출시켰다. 그리고 이근무·김진숙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을 주체로 하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주체성과 관련한 관점에 디아스포라적 관점을 접목시킨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도구적 결혼으로 인해 수직적 부부관계를 형성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수평적 부부관계로 질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결혼생활도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직면하는 억압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가능성, 즉 주체성까지도 채굴하여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관계로 형성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시킨 한계도 보였다. 그리고 최지영도 국제결혼한 ‘남편들’을 주체로 한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한 가정의 가해자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결혼이민가정의 가장인 남편으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김민경이 환기시켰던 바, 이들이 국제결혼가정의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근무·김진숙의 경우처럼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들을 경험하는 문제가정으로 틀 짓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부터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도 보였다.

이상에서 보듯, 이러한 국제결혼남성들의 주체성과 관련한 내부자적 시점에서의 연구들도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라는 대상화, 객체화된 관점으로부터는 부분적으로만 탈피한 수준에 머물러있고, 이에 따라 부정일변도의 이미지 또한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만 재고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에이전시에 주목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 3. 방법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 1) 방법론적 배경: 생애사적 사례이해

사례란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및 실천의 단위로서 한 사람, 가족, 그룹, 기관, 학교처럼,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체제도 포괄하는 개념이다(Mayring, 2002: 41-42). 그런데 다원화 및 개인화로 특징되는 후기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계획 등을 이러한 사례에 적용하는 일반화된 사회복지실천을 한다는 것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en)'(Habermas, 1981)<sup>6)</sup>나 '생활세계의 병리화(Pathologisierung der Lebenswelten)'(Kraimer, 2003)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사례의 주체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개별화된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사례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퍼만(Oevermann)은 생활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생활세계에 대해 '대리 의미부여(stellvertretende Deutung)'를 하는 것으로, '이론이해'와 '사례이해'를 통해 이론과 실재를 증재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Oevermann, 1978: Ackermann and Owzarski, 2000: 326-327: 재인용)고 하였다. 따라서 개별화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이론이해와 사례이해를 통해 이론과 실재를 상호 증재하고 통합하는 능력, 즉 생활세계의 이해 능력을 '아비투스(Habitus)'로서 내재화해야 하는데, 이는 '이론적 능력'과 '해석학적 능력'(Kraimer, 2003: 170-171; Oevermann, 1978: Ackermann and Owzarski, 2000: 326-327: 재인용)을 갖출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해와 사례이해는 사례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재구성(Fallrekonstruktion)'은 사례의 복잡성, 총체성, 그리고 생애사적 배경의 중요성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현장에 들어가 과연 어떠한 고유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현실에 대해 '이해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단일성과 다양성 간의 상관성을 사례에서 '유추적인 방법

6) 생활세계는 종교, 과학, 문학 등의 세계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이 지각하는 세계인데, 과학은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세계 자체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러한 과학의 세계와 차별을 두기 위해 훗설(Husserl)이 정립한 철학적 개념이다. 이후 이러한 현상학적 개념은 쉴츠(Schütz)와 하버마스(Habermas) 등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계승·발전되었는데, 특히 Habermas(1981)는 그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이러한 생활세계를 체계(System)와 대비시켜 현대사회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즉 생활세계가 사회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면, 체계는 권력, 화폐처럼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행위조정이 이뤄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구조에서는 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된 채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는 이처럼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에 침입하여 생활세계를 부속화하는 병리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체계의 월권방지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자발적 연대의 활성화를 통해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alogische Methode)'으로 도출하는 것, 즉 사례에서의 '의미관계(Sinnzusammenhang)'를 추론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례이해는 이론이해와 함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론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례재구성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중재·통합하는 것으로, 이론과 실제의 긴장 영역(Spannungsfeld)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행위인 동시에, 실천적인 행위(Kraimer, 2003: 168-169)라 하겠다.

한편, 생애사적 사례이해는 이러한 사례이해를 연구주체에 의해 이야기된 주관적인 생애사에 근거해 이론과 실재를 중재·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사례의 생활세계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티어쉬(Thiersch, 2002)는 사례이해를 위해 이처럼 생애사적 접근을 접목시키는 것은 연구주체가 자신의 생애사에 대해 내부자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의미부여한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관건일 때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사례에서는 어떠한 에이전시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부자적 접근에 의해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재구성을 통한 생애사적 사례이해가 매우 유용한 방법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과의 인터뷰는 쉴체(Schütze, 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 방법에 따라, 2010년 7월 초의 2주간에 걸친 전국의 한 농촌 지역 체류를 통해 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 읍단위 거주자 5명과 면단위 거주자 3명인데, 국제결혼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 2명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일본, 몽고 등으로 국제결혼 대상국을 달리한 선정을 하였다. 또한 '보통의' 일반 국제결혼남성들에 제한시킨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이에 해당되는 남성을 소개받아 이 남성을 핵심인물(Schlüsselperson)로 하여 그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가는 방법을 취했다. 인터뷰 실시 전에는 전화상으로 연구 목적과 인터뷰 방법을 설명하여 구두상의 동의를, 그리고 인터뷰 실시 시에는 이를 재차 설명하여 서류상의 동의를 받아, '고지된 동의(informierte Konsens)'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였고, 연구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비밀이 보장됨을 주지시켜 연구윤리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야기의 시점은 이들에게 주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얻기 위해<sup>7)</sup>, 현재나 과거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

7) 질적 연구에서는 이야기된 순서도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Rosenthal(1995: 2005: 2008)은 이를 중시하였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주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술자에게는 가장 현안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안에는 가능한 한 풍부한 이야기가 행해질 수 있도록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인터뷰대상자와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였다. 인터뷰는 국제결혼생활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이야기가 충분히 풍부하게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종료하였는데,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점에 한해서는 보충하도록 한 다음, 더 이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최종적인 종결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대략 2시간이 소요되었다.

## (2) 자료분석

인터뷰자료는 Schütze(1983: 283-285; 1984: 78-117; 2006: 206-237)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로젠탈(Rosenthal, 1995: 215-226; 2005: 456-468; 2008: 161-198)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narrativ-biographisches Interview)'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필사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웃음, 한숨 등과 같은 표정과 함께 텍스트화하였다. 둘째,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는 이야기된 경험을 이야기가 진행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였고, 이어 각 카테고리에 연결된 경험들에 대해 인터뷰파트너가 부여한 의미를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에 근거해 재해석하였다. 셋째, 개별사례이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재해석한 내용들을 다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각 사례에서 테마화된 주요 생활영역이 무엇이고, 이러한 생활영역에서 표출된 에이전시는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추론하였다. 넷째, 비교분석 단계에서는 '극소비교의 원칙(Strategie des minimalen Vergleichs)'과 '극대비교의 원칙(Strategie des maximalen Vergleichs)'에 따라 개별사례이해의 결과들을 상호 대조시킨 분석을 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생활영역과 이러한 생활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표출된(잠재된) 에이전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컨트롤 단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질적 연구자 2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 4. 연구결과

### 1) 국제결혼주체의 일반적 특성

〈표 1〉 국제결혼주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제결혼주체	출생연도(배우자)	배우자연령차	결혼기간(연령)	결혼경로	배우자출신국(국적)	학력(배우자, 출신국 직업)	직업(배우자)	부모생존여부 및 결혼후 동거기간	형제관계(배우자)	동거가족	이동지 및 기간	결혼후 주거형태 변화
A	1979 (1987)	8년 연상	3 (28)	결혼업체	캄보디아 (캄보디아)	실업고 (중중퇴)	음식주점공동	부모생존, 3년	2남중장남 (2남3녀중3녀)	부모, 배우자, 내달출산예정	서울, 1년(음식업)	읍, 단독주택, 무변화
B	1970 (1988)	18년 연상	2 (38)	결혼업체	베트남 (베트남)	실업고 (중졸)	농업공동	모생존, 2년	3남5녀중3남(4남5녀중일곱번째)	모, 배우자, 1녀(4개월)	무	면, 단독주택, 무변화
C	1965 (1964)	1년 연하	18 (27)	친척소개, 연애 (통교관)	일본 (일본)	인문고 (간호사)	농업공동	부모생존, 13년	4남4녀중장남(1남3녀중막내)	부모, 배우자, 1남(중3), 1녀(중1)	인천, 10년(가구업)	면, 단독주택, 기혼아파트 거주
D	1959 (1967)	8년 연상	14 (37)	통교관	필리핀 (한국)	인문고 (대졸)	석대표(학원영어교사)	별세, 10년	5남중막내 (2남3녀중셋째)	배우자, 1남(중1), 2녀(초5, 4)	서울, 인천, 부산, 19년(석재업)	읍, 임대아파트, 기혼단독주택 거주
E	1961 (1967)	6년 연상	9 (40)	통교관 (체성적)	태국 (한국)	실업고 (초졸)	농업, 일용노동부 (농업)	별세, 7년	4남2녀중장남(3남4녀중3녀)	배우자, 2녀(초2, 1), 1남(4세)	광주, 서울, 대전, 10년(표구업)	면, 단독주택, 무변화
F	1972 (1979)	7년 연상	7 (31)	지인소개, 연애	몽고 (한국)	실업고 (대졸, 인회사)	자동차공수리 (문화가정방문지도사)	모생존, 1년	1남6녀중넷째(1남1녀중첫째)	배우자, 1남(6세), 1녀(4세)	안양, 구례, 광주, 9년(자동차정비업)	읍, 임대아파트, 기혼아파트, 단독주택 거주
G	1955 (1973)	18년 연상	13 (42)	여행지모 소개	중국 선족 (한국)	중졸 (고졸, 인회사)	일용노동부 (요양보호사, 중국원어민교사)	별세, 11년	3남5녀중3남(1남4녀중4녀)	배우자, 1남(초5), 1녀(초1)	무	읍, 임대아파트, 기혼단독주택 거주
H	1965 (1969)	4년 연상	10 (35)	지인소개, 연애	조선족 (한국)	인문고 (고졸, 인수생)	일용노동부 (요양보호사)	부모생존, 6년	3남1녀중장남(1남4녀중막내)	배우자, 1녀(초3), 1남(6세)	서울, 15년(업체운송업)	읍, 임대아파트, 기혼단독주택 거주

본 국제결혼주체들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가 2명, 40대가 4명, 그리고 50대가 2명인데, 결혼시 연령이 20대 후반인 경우가 2명, 30대인 경우는 4명, 40대 초반인 경우는 2명으로, 평균결혼연령은 34.6세이다.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1년 연차가 1명, 4, 6, 7년 연상이 각각 1명씩, 8년 연상은 2명, 그리고 18년 연상이 2명으로, 10년 이상의 현격한 차이는 2명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결혼기간은 2, 3년으로 짧은 경우가 각각 1명씩, 7, 9, 10년으로 상당기간인 경우가 각각 1명씩, 그리고 13, 14, 18년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각각 1명씩이다. 결혼경로는 중개업체가 2명, 친척이나 지인의 소개가 4명, 통일교기관이 2명으로 다양하다. 학력은 연령이 가장 높은 55세의 G가 중졸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배우자들의 학력은 초졸이 1명, 중중퇴와 중졸이 각각 1명씩, 그리고 고졸이 2명, 대졸이 3명으로 매우 다양한 수준이다. 배우자 출신국은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고, 중국(조선족)으로 다양한데, 결혼생활이 3년 이하인 2명의 배우자<sup>8)</sup>와 18년에 걸친 장기간의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 있다.

이들은 부부 공동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과 서비스업 이외에 공업과 일용노무 등 전형적인 남성적 기층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배우자들의 직업 또한 농업과 서비스업 이외에 요양보호사라는 전형적인 여성적 기층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 원어민교사 등 타 문화적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초국가적 직종에도 진출해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들의 결혼 전 출신국에서의 직업은 간호사, 외국인(한국, 일본)회사 직원과 무직자로 양극화되는데, 이들의 현 직업은 결혼 전 출신국에서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4개월 된 여아를 돌보며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 한 베트남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과 돌봄, 교육,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농을 경험한 경우는 5명인데 9년부터 15년까지의 장기적 도시생활 끝에 귀향한 것으로, 1명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1명은 석재사업에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공업과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며 농업에는 부업으로만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생활만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3명인데,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과 서비스업, 일용노무직 등으로 다양하다. 면단위 거주자 3명은 모두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1명을 제외한 읍단위 거주자 4명은 모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3세대를 이루고 생활하는 경우는 3명이고, 나머지 5명은 2세대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중 부나 모 한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2명이다. 그런데 이들 2명은 각각 1년과 6년의 면단위 3세대 공동생활 끝에 배우자의 뜻에 따라 읍으로 분가한 경우이다. 그리고 2세대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다른 3명도 모두 부모의 별세 전 각각 7, 10, 11년의 3세대 공동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자녀들의 연령층은 태아부

8)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은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장결혼과 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목적에 따라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2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거주한 여성이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만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박재규, 2005: 127). 그런데 본 국제결혼주체들의 배우자 2명이 아직 출신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 취득의사를 강하게 보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혼인신고일 이후의 법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아직 국적 취득에 필요한 2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터 중 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결혼 3년 미만의 2명이 각각 4개월의 딸 1명과 임신 중인 태아 1명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 2)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이해

본 국제결혼주체들은 다중적인 소외자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관점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인 교섭능력, 즉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이전시가 발휘되는 주 생활영역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이 된다.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가정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며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작동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외부자적 시각과는 달리 주체화되고 있는 이들의 에이전시가 어떠한 구조적인 제약에서, 어떻게 이에 대응하며 작동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주 생활영역인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은 중심적이고, 학교생활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바, 중심축이 되고 있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먼저 분석하고, 이어 주변화되고 있는 학교생활을 분석할 것이다.

### (1) 직업생활에서의 에이전시: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

본 국제결혼주체들의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전형적인 기층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나타난다. 그런데 현 시점의 직업생활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바, 이에 나타난 에이전시를 먼저 분석하고, 이어 그 이전, 즉 학교졸업 이후의 직업생활에 나타난 에이전시를, 마지막으로 이러한 에이전시가 작동되는 동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직업적 진출과정과 귀농 혹은 귀향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① 현 직업생활에서의 에이전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 국제결혼주체들은 현재 지역성을 반영한 농·원예업에 집중된 단일한 직종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생산제조업, 운송업, 기계관련업, 음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자본주의적 위계구조의 주변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남성적 기층직업에 종사하며, 소외되고 배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부모들의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 자신들의 적성이나 재능 등을 반영한 직종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직업생활 또한 주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재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은 대략 3개의 유형으로 나뉘는 바,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큰 전답을 이어받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농업인의 생활만을 지속하

고 있는 경우(B)에는 2명의 형이 있는 막내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농업을 직업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부모가 일군 전답을 두 배로 늘리는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에이전시를 발휘한다. 그리고 장남임에도 독자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이농을 하지만 결국 귀농하여 농업인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C)에도 한편으로는 과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조작능력을 습득·상품화<sup>9)</sup>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작물의 품목을 수요에 따라 개발하고 친환경 유기농법을 독학으로 습득하고 실제에 적용하며, 나아가 판로까지 개척하는 농업경영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기념비적 모델로 자리매김해 가는 데에 성공하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킨다.

둘째, 상대적으로 작은 전답을 소유한 부모로 인해, 독자적으로 개척한 직업에 종사하며 농업에는 부모의 농사를 거드는 수준에서만 부업으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D, E, F, H)이다. 이들은 이농한 도시로부터 귀향한 이후에도 도시에서 종사했던 동종의 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거나, 단순노무직으로의 직종전환을 통해 불안정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고령으로 농사를 전담할 수 없게 된 부모를 대신하거나 돕는 차원 차원에서 부업으로만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적 상황은 귀향 이전의 수준을 담보하거나, 심지어는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탄력성이 발휘되는 에이전시가 작동된다. 그런데 이처럼 귀향 이전보다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유지해가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결혼생활이 주는 행복감, 상징으로서의 고향이 주는 따뜻함과 친숙감, 지역으로서의 농촌이 주는 느낌의 생활스타일, 정서적 친화력을 공유하는 부모 및 친구들과의 교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농업인이 아닌 영세자영업자나 조기퇴직 공무원인 부모로 인해, 지역성과는 무관한 음식서비스업(A)이나 농업과 유사한 원예업에 종사(G)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것으로, 음식 배달부터 서빙에 이르는 체계적인 견습과정을 거쳐 마침내 독자적인 주점을 운영하게 되는 성공을 거두는가 하면, 난(蘭) 사업의 실패로 일용직 노무자로 전락하여 직업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채 50대 중반을 암울하게 넘기기도 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의 직업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주점으로부터 음식점으로의 업종전환을 계획하며 사업가로서의 도약을 모색하는 에이전시를 발휘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모국이 중국인 점을 활용하여 중국 농산물을 이용한 무역업을 구상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용노무직을 청산하고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에이전시도 발화시키기도 한다.

이로써 현 직업생활은 자본주의적 위계구조의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발휘하는 주체로서의 에이전시를 작동시키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 ② 학교졸업 이후 직업생활에서의 에이전시

현재 이전의 직업생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농을 통해 도시에서 직업생활을 한 경우(C, D, E,

9) 여기에서 상품화란 이앙기, 콤팩트,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기술을 자신의 농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농사를 위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각종 농기계를 보유한 C의 경우, 1개 면의 농사를 거의 도맡아 질 정도로 농업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F, H)와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직업생활을 한 경우(A, B, G)로 양분된다.

이에 먼저 이농생활을 한 경우의 귀향이나 귀농 전까지의 직업생활을 분석하면, 현 직업보다 더욱 분화된 기층직업에 종사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직업생활 과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역동적인 에이전시를 작동시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 이외에 가구업, 표구업, 자동차판금업, 화학관련업, 미용업 등 보다 분화된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생활을 하였는데, 기술을 습득하는 견습과정에서의 임금차별, 업주의 인간적인 모욕, 적성에 일치하는 직종에 진출하기 위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직종을 일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무력감 등, 배제와 소외를 가속하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인 타율성과 개인적인 자율성이 상호 충돌하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직업생활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에이전시를 작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생활만을 고수한 경우의 직업생활을 분석하면, 마찬가지로 농업 이외에도 원예업이나 음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고려한 선택에 따른 직업생활을 했던 것으로, 부모의 농경지, 부모와 친척의 직업적 노하우 등 가족적 자원을 활용한 직업생활을 하는 에이전시를 발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이농의 경험이 있든 혹은 농촌생활만을 고수했든 상관없이, 기존의 직업생활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가해지는 직업적 타율성과 이에 맞서 자기주도성을 관찰하려는 개인적인 자율성이 상호 대립을 이루는 갈등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적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에이전시를 작동시켰으므로,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했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 ③ 직업적 진출과정 및 귀농 혹은 귀향 동기에 내재된 에이전시

그렇다면 소외되고 배제된, 주변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남성적 기층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들의 에이전시가 작동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이였을까? 직업적 진출과정이나 귀농 혹은 귀향 동기와 관련시킨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적 진출과정을 보면, 학교졸업 이후 이농을 한 경우이든 농촌생활을 고수한 경우이든, 가족구성원 등 타자의 강요가 아닌 자신들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상응하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 계획한 직종에 이르기까지 지름길을 가기도 하고 우회길을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직장으로의 진출은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직업진출을 추동하는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빈농 출신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 혹은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결여 등 열악한 농촌가정 환경이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농촌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가해진 구조적인 제약이 이들의 직업적 진출과정에서 오히려 자립적인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적 진출과정뿐만 아니라 이어진 직장생활 또한 주체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농이나 귀향 형태의 귀소를 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이들의 귀소 시기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전후로 한 시점으로, 직업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귀농이나 귀향을 택한 것으로, 도시에서의 직업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인 위기 요인으

로 귀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귀농이나 귀향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도시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C, D, F)와, 정리해고와 같은 직장 내적 악재(H)나 수차례에 걸친 부의 자살시도(E)와 같은 가정적 불운이 겹치면서 반자율적·반타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로 양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를 모두 경험한 상황에서 쌍방을 모두 긍정하지만, 농촌생활이 자신들에게 더 적합한 생활공간이라는 인식 하에 농촌지역을 자율적으로 양자택일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도시생활의 실패나 가정적 위기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낙향하거나 귀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일방만을 타율적으로 택일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가정적 위기로 인한 귀향도 빚보증으로 떠안게 된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부가 자살을 시도한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한 가정의 불운에 그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채무상환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보증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귀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농촌생활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소외와 배제를 낳는 사회구조적 제약이 귀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자율적 혹은 반타율적 귀소과정에서도 갈등상황을 극복해나가는 협상능력으로서의 에이전시가 작동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이들은 소외되고 배제된 주변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남성적 기층직업에 종사하는 생활 속에서도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직업생활과정에서 발생한 대립적인 갈등관계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에이전시를 작동시켰기 때문이었음을, 직업적 진출과정 및 귀농(귀향) 동기와 관련시킨 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생활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생활에서는 어떠한 양상의 에이전시가 나타나고 있을까?

## (2) 가정생활에서의 에이전시: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

본 국제결혼주체들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현 시점의 가정생활에서는 국제결혼생활과 다문화 가정생활이 화두인데, 이러한 초국가적 가정의 한 주체가 되는 이들에 대한 내부자적 인식은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편견에 매몰되어 있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양가성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의 초국가적 가정생활은 마이너리티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수용하나, 배제를 가속하는 편견은 거부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는 생활로 재현된다. 또한 이러한 이들의 가정생활에서는 초국가적 가정을 구성·유지시키는 주체, 즉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작용하는 에이전시도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학교<sup>10)</sup>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생활과 맞물려 이루어진 이들의 국제결혼 이전의 가정생활에서는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었던 것으로, 국제결혼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10) 초급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교는 오늘날 초등학교로 불리는데, 본 국제결혼주체들이 학교를 다녔던 시기에는 국민학교로 불렸던 바, 이들의 생애사적 맥락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결혼 이전의 가정생활은 다음의 장에서 학교생활과 관련시킨 분석을 통해 별도로 논하고, 여기에서는 먼저 농촌지역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내부자적 인식과 그에 내재된 에이전시의 양상을 살펴본 다음, 이어 초국가적 가정생활 속에 내재된 에이전시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① 국제결혼남성에 대한 양가적 인식에 내재된 에이전시

농촌지역 국제결혼남성들은 외부자적 시각에서 볼 때, 결혼시장에서 배제된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한 주변화된 남편이자 통합의 대상인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로서, 다중적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객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부자적 시각에서는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혼성적인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초국가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중립적으로 재현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자적 관점에서처럼 객체화된 소외자의 이미지로도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양가성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다변화<sup>11)</sup>가 특징인 국제결혼경로도 결혼중개업체로 단일화하는가 하면, 이중성<sup>12)</sup>이 있는 국제결혼주체의 지역성 또한 농촌지역으로 단일화하기도 하는 편견이 노출된다. 이처럼 자신들을 포함한 국제결혼남성들의 사회적 존재는 내부자적 시각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왜곡되고 있는데, 마이너티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외부자와 마찬가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차별, 배제, 객체화, 타자화하는 외부자적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양가적 인식이 마이너티로서의 존재를 오히려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긍정적으로 재정의하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도록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농촌지역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내부자적 인식은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거부하기도 하는 양가성이 그 특징인데, 이러한 양가성이 오히려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서 재정의하는 에이전시를 발화·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적인 국제결혼가정생활에서는 어떠한 에이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 ② 초국가적 가정의 유형에 따른 에이전시

이들의 국제결혼가정생활, 즉 국제결혼생활이나 다문화가정생활은 결혼경로와 친밀감에 기초한 결혼여부에 따른 이들의 자존감, 국제결혼생활과 다문화가정생활의 양상 그리고 초국가적 가족관계의 발전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결혼정보업체(A, B)나 통일교(E)를 통해 친밀감이 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혼적 성격이 강한 국제결혼을 한 남편으로서, 낮은 자존감을 보이나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정한 국제결혼생활이고 다문화가정생활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결혼 이전보다 몇 배의 노력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 배우자의 모국에 거주하는 처가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인·장모를 자국 내로 초청하는 등 편리공생적인 초국가적 가족관계를

11) 결혼경로는 결혼정보업체 이외에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 종교적 신념, 현지 여행지에서의 만남 등으로 다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12) 국제결혼한 농촌지역 남성들 모두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다 결혼한 이른바 '농촌총각' 출신인 것만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C, D, F)는 이농을 하여 도시생활을 하던 중에 국제결혼을 한 일시적 '도시총각' 이기도 했던 이중성이 이들 국제결혼주체의 지역적 특징이다.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결혼을 위해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을 종료한 이후까지도 국제결혼한 사실을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비밀에 부치기도 하는데(A, B),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비밀에 부치는 경우(A)도 있을 정도로<sup>13)</sup>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집단에 귀속되는 사실에 대해 수치스러워 하며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의 입국을 앞두고 모국에서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국제결혼 사실을 타인들에게 고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결혼을 한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실제적으로 정립하고 자기주도성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킨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제결혼에 대한 자타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 또한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가족과 친척, 이웃 등 타인의 인정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자존감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러한 생활을 가능케 한 통로가 된 결혼경로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즉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노력을 통해 타인의 인정과 존중도 받고 자신들의 자존감도 회복하는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경우(B, E)가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비밀에 부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A)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자신들 스스로와 타인들이 채운 편견이라는 족쇄로 인해 영어(囹圄)의 삶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닌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연대감, 그리고 결혼 전보다 몇 배의 노력을 통해 성실히 수행한 가장의 역할에 대한 가족과 친척, 이웃들의 인정과 존중 등으로 이러한 족쇄가 풀리는 해방감과, ‘마침내’ 어른이 된 행복감을 경험토록 하는 삶의 원천이 되기도 한 측면이 있다. 또한 배우자의 모국에 거주하는 처가에 대한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 재정적 지원은 배우자와 처가의 노골적 혹은 암묵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비자발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의 증가로 자발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변화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 외에 장인·장모를 자국 내로 초청하는 형태의 재정적 및 정서적 지원을 하는가 하면, 메신저나 국제전화 등을 통한 처가와와의 교류를 통해 초국가적 가족관계망을 형성·확장시켜가는 에이전시도 작동시키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가족관계는 편리공생적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자국 내에서 형성된 초국가적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민족성이나 국가성에 앞서 가족성이나 인간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을 구축해나가고, 나아가 남편이나 아들 그리고 아내나 며느리 혹은 형수나 체수의 역할 등 다양한 가족 내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수행토록 돕는 전략을 통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위치로까지 발전하도록 이끄는 가부장적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발휘한다. 따라서 이들의 국제결혼가정생활은 주로 남편들이 이끌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13) 장애인이나 실업 등의 불리한 조건에 처한 상당수의 도시남성들은 자신들의 주도가 아닌, 부모, 특히 모의 주도 하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한다는 보고(한건수, 2006: 216-217)가 있다. 즉 모가 맞선 여행에 동행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체 상담원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맞선 과정이나 신부의 선택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자신들의 주도 하에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실현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둘째,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친밀감이 형성된 과정을 거쳐 국제결혼을 한 남편(C, F)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데 국제결혼생활과 다문화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이고, 배우자의 모국에 거주하는 처가와도 방문이나 국제전화로 통해 상리공생적인 초국가적 관계를 형성·구축해가고 있는 경우이다. 친밀감에 기초한 결혼을 한 이들은 결혼경로와 관련하여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과는 차별을 두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내국인 간의 결혼을 한 일반 남성들과는 동질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국제결혼생활과 다문화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일반 부부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과 다를 바 없는 동질성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관심사는 한 외국인 여성이기 전에 한 여성인 배우자와 더불어 다른 일반 여느 부부들이나 가정들과 다름없는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실에 방점을 찍고 국가성 혹은 민족성에 기초한 국제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환기시키며 살아가는 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 혹은 민족적 '차이'가 부부 간에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장점으로 만드는 국제결혼생활이나 다문화가정생활이 되도록 초국가적, 혼성적 에이전시를 작동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적 혹은 민족적 차이가 이들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최소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복지적 개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가성이나 민족성이 아닌 가족성이나 인간성에 기초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즉 여느 다른 일반 부부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부부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질성의 굴레를 씌워 문제부부<sup>14)</sup>나 문제가정<sup>15)</sup>으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감까지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복지적 개입이 그 가정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안녕을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다문화가정주체로서의 에이전시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 외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인성교육의 필요성,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확보 등과 같이 일반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문제나, 도시로 유학 보내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의 농촌지역 일반 학부모가 고민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녀들의 국적을 한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출신국도 함께 선택하여 이중국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다문화가정 부모로서 갖는 고유한 문제도 논의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특성도 나타난다. 또한 처가와의 초국가적 가족관계는 처가댁 방문이나 장인·장모의 초청, 국제전화 등 상호호혜적인 정서적 교류에 집중되어 있고, 처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요구

14) 예컨대 F는 몽골인 배우자와 일군 다문화가정의 모범사례로 지방의 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을 만큼 행복한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특정 프로그램이 국제결혼한 모든 남편들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남편들과 동일시하여 문제남편으로 보고 개선시키고자 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복지기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원방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5) 예컨대 C는 여중 1학년인 딸의 경험을 들어, 학교의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별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들을 일반가정자녀들과 '구분'하여 '편 가르기' 하는 '차별'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딸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받지도 않을뿐더러 그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는, 상리공생적인 성격을 띤다. 오히려 처가로부터 자녀들의 유학지원을 제의받는(C), 초국가적 가족관계의 수혜자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나아가 이중국가를 넘어 3중, 4중의 초국가적 가족관계망을 통한 상호교류(F)를 통해 초국가주의를 주도하는 글로벌적 주체로 거듭나기도 한다. 아울러 자국 내에서 형성된 초국가적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첫 번째 유형에서처럼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을 구축해나가고, 다양한 가족 내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수행토록 도움으로써,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부장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한다. 또한 결혼생활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부간 갈등에 대해서는 부부 혹은 자녀 중심적 사고에 기초하여, 그리고 부부갈등에 대처할 때에는 가부장적 권위만이 아닌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해가는 중재자로서의 에이전시도 작동시킨다. 따라서 이들의 국제결혼가정 생활은 부부 쌍방에 의한 합의와 조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종교적 신념(D)이나 현지 여행 중의 만남(G), 지인의 소개(H)를 통해 결혼하였으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D, G) 혹은 친밀감이 형성된 것에 대한 확신 없이(H) 국제결혼을 한 남편으로서, 자존감은 물론 결혼생활과 가정생활도 모두 불안정한(labile)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처가가족들의 연쇄이주로 인해 요구되는 자국 내 정착을 위한 일상적 지원(G, H)을 하며 편리공생적인 초국가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현지 여행 중의 만남,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매매혼적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과는 차별을 두는 태도를 취하며 자존감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친밀감 없이 혹은 친밀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한계로 편견의 굴레에도 붙잡힌,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는 데에 그친다. 그리고 이들의 국제결혼생활과 다문화가정생활 또한 동일한 이유로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른 두 유형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들의 국제결혼생활이나 다문화가정생활을 주도하는 주체가 배우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의 실업적 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경제적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모국에서 학습하거나 체득한 배우자의 양성평등적 교육·문화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양성평등적 가족관이나 생활관에 익숙한 배우자들의 영향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사고와 생활방식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불편함과 억울함 등의 스트레스만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적 사고와 생활을 실행해가는 방향으로 노력·발전토록 하는 실험자로서의 에이전시도 작동시키도록 작용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교제범위가 지나치게 동족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수민족집단 자신에 의한 자기배제의 문제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음을 환기시키며, 수용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교제범위를 한국인들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권유(H)하는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자문능력을 발휘하는 에이전시도 작동시킨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에 따른 정서적, 재정적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호소하지 않는데,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친구와 이웃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연령대가 아직 어려 다양한 경험이 채 축적되지 않은, 다문화사회의 일천한 역사성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국제결혼 시 예상치 못했

던 처가가족들의 연쇄이주가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여서는, 장인·장모의 노후부양 문제 등과 같은 위기뿐만 아니라, 처가를 활용한 초국가적 경제활동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도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노동문제와 체류문제, 노인문제 등의 외국인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도 환기시킨다. 또한 이처럼 처가가족들의 연쇄적인 입국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중개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원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는 초국가적 가족관계는 편리공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자나 멘토의 역할은 부부 간 역할관계에서 밀린 이들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만회토록 하고, 이에 따라 부부관계도 불안정하게나마 균형을 이루며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농촌지역 국제결혼남성들의 마이너리티로서의 국제결혼남성들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이었는데, 이러한 양가성이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서 재정의하도록 만드는 에이전시를 발화·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국제결혼가정생활에서는 가부장적 가장, 중재자, 멘토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해가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음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이전의 가정생활에서는 어떠한 에이전시가 나타났던 것일까? 이 시기의 가정생활은 부(父)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부의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는 학교생활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중·고등학교의 생활과 관련시켜 재현되고 있는 바, 이 시기를 위주로 한 가정생활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국제결혼 이전의 가정생활에 나타난 에이전시는 학교생활에 내재된 에이전시에 대한 다음의 분석 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3) 학교생활에서의 에이전시: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

학교생활은 위 두 영역들의 생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이나 가정의 생활이 현재진행형으로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반면, 학교생활은 과거형의 사건으로서 부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열등생'으로 틀 지워진 경험을 은폐하려는 방어적 기제보다는, 성적위주의 획일화된 학교사회에 대항하는 이들의 주체적인 학교생활이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생활에서는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며 탈획일화<sup>16)</sup>된 학교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작동되는데, 이러한 에이전시는 학교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재정의하며, 각자 부의 이미지에 따라 보낸 학교생활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16)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중·고등학교의 경험이 주를 이루고, 국민학교에 대한 경험은 일부분만을 차지하는데, 이들 학교생활의 화두가 되는 탈획일화는 남성성모델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졌던 바, 이에 대한 경험이 집중된 중·고등학교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학교생활에 나타난 에이전시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학교 시기의 경험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경험과 통합시켜 탈획일화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 바, 이하의 학교생활은 중·고등학교의 경험이 주를 이루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것임을 밝힌다.

이에 먼저 이들이 재정의한 학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이러한 재정의된 학교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① 재정의된 학교의 의미에 내재된 에이전시

본 국제결혼주체들은 학교의 일반적인 의미, 예컨대 성적향상을 도모하는 학습장으로서의 의미는 부차화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며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학교는 친구들과 교제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학습장이자, 미래의 가장인 부로서의 역할을 부모의 농사를 보조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부의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하는 장으로서, 주로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며 생활한 것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성적도 좋지 않은 열등생으로 틀 지워지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 짓기에 거부하며 친구들과 교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가정적 환경에 상응한 가장의 역할을 모색·학습하는 독자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물론 성적으로 서열화되는 학교시스템 속에서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주변인으로서 자리매김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외부자적 틀 짓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며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탈획일화를 위한 행위자성은 가부장적 가장의 남성성모델만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작동되는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로써 이들은 성적향상을 도모하는 학습장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부차화하고,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재정의하며,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는데, 가부장적 남성성모델만을 답습하는 차원의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작동시킨 한계를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장으로서 재정의된 학교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고, 이에 내재된 에이전시는 어떠한 양상을 띠었던 것일까?

#### ② 가부장적 남성성모델 계승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에이전시

각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계승하는 데에 필요한 학습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학교생활은 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부의 이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인도자로 재현된 부의 이미지에 따라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남성성을 학습한 학교생활을 한 경우(B, C, D, E, F)이다. 이들의 부는 '큰바위 얼굴'과 같은 멘토로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 남성성모델로 재현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신뢰를 주는 부에 힘입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식을 스스로 깨달아 습득해가는 에이전시를 작동시킴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열등생으로 전락하는 위기 속에서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원주자가 되기도 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부를 모델로 하는 남성성을 내재화하는 학교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생활을 통해 재현된 이들의 모습은 미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요, 당시의

부모에게는 좋은 아들이거나 모범적인 장남이고, 가업인 농사를 이어받는 전승자 등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준농업인<sup>17)</sup>이다. 즉 이들은 부모 재현되는 인자한 남성성모델에 따라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남성성을, 부모를 보조하는 준농업인으로서 학습하며 학업은 부차화하는 학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억압자로 재현된 부를 모델(A)이나 반면교사(H)로 삼아 권위주의적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을 답습한 학교생활을 한 경우이다. 이들의 부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제하거나 불허하는 가부장적 억압자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로 재현된 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학교생활에서는 일탈을 일삼는 문제학생이나, 농업인인 부의 이미지를 답습하는 준농업인으로서의 생활이 주를 이룬다. 즉 가부장적 억압자로서의 부에 대해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문제학생으로서 대항(A)하기도 하고, 부의 농업을 조력(H)하는 준농업인으로서 학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으로서의 부의 모습 속에서 흡연과 음주, 가출 등 일탈행위를 일삼는 문제학생으로 만든 원인제공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운 문제해결자의 이미지를 본 것은 왜곡된 남성성의 이미지를 부모부터 그대로 답습한 학교생활을 했음을 반증한다. 반면, 후자가 가부장적 억압자로서의 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준농업인으로서의 학교생활을 통해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남성성을 학습하는 동시에, 여성성을 대변하는 가사활동에도 능숙한 생활을 한 것은 가부장적 남성성으로 대변되는 부에 대해 대립자로서도 학교생활을 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무기력자로 재현된 부의 이미지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양극단적인 남성성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학교생활을 한 경우(G)이다. 이에 해당되는 부는 가장으로서의 유능성과 무능성을 동시에 갖는 모순된 남성성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재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를 둔 경우에는 남성성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며 문제학생이 되어 현실도피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학교생활마저도 중학교만을 졸업하는 수준에서 마감된다.

이로써 이들의 학교생활에서는 열등생이나 문제학생으로 틀 지워지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었는데, 부의 이미지에 따른 가부장적 남성성모델만을 계승하는 데에 필요한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왜곡된 측면이 노출되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 5. 결론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에이전시를 내부자적 관점에 의해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한 결과, 다중적 소외자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관점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인 교섭능력을 작동시키며 살아

17) 이에 대한 예외는 모범적 장남의 역할을 대학교육까지 받은 아들의 모습에서 찾고자 했던 부를 둔 C가 된다. 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사를 지은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 공부에 매진했던 유일한 학생이었는데, 대학 입시에는 실패한다. 이에 가구업에 종사하는 도시생활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귀농하여 성공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가고 있는 주체로 재현되었는데, 주 생활영역인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가정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며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었고 또 현재도 작동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데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국제결혼주체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본주의적 위계구조의 주변부에 위치한 직업에 종사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배제되고 소외된 객체가 아니라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는 주체로 생활했던 것으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변화된 직업적 위치에 맞서 자기주도성을 관철시키는 협상능력, 즉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행위자성을 발휘했던 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협상능력에 주목한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된다. 예컨대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이러한 개인적인 협상능력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로서의 잠재되어 있는 집단적인 협상능력도 발휘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상능력으로서의 에이전시가 직업적 진출과정에서는 열악한 농촌가정 환경이 오히려 자기주도성을 발휘토록 하고, 귀농이나 귀향도 거시경제적 위기 속에서 갈등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추동하는 능력으로 표출되었던 바, 객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에 주목한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은 매우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 국제결혼남성들에 대한 내부자적 인식은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편견에 매몰되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거부하기도 하는 양가성이 그 특징인데, 이러한 양가성이 오히려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서 재정의하는 에이전시를 발화·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양가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변증법적 대응능력에 주목한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도 요구된다. 또한 국제결혼주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부자적 편견은 물론 내부자적 편견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외부자들뿐만 아니라 내부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이들의 국제결혼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주체로서 자리매김해가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었던 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초국가적 가정이 주요 담론으로 정착되도록, 이들을 포함한 전체 시민과 다문화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상 다문화교육과 이에 근거한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이들은 가부장적 남성성모델을 학습하는 장으로서 학교를 재정의하고,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생활을 했던 바,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재능에 맞는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에이전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탈획일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탈획일화를 위한 행위자성이 가부장적 남성성모델만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작동된 왜곡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던 바, 다양한 남성성모델에 대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의 학습기회 부여가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남성성이 국제결혼 이후의 초국가적 가정생활 속에서는 위기와 도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양성평등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바, 특히 평생교육 차원

에서의 학습기회 부여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주요 생활영역에서 발휘되고 있는 상술한 에이전시는 어떠한 특성의 시기나 경험이 이러한 에이전시의 발화나 구축 혹은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축·작동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에이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협상하는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생애성(Biographizität)'(Alheit, 2006; 2003; Thiersch, 2002)<sup>18)</sup>이나 '생애사적 능력(biographische Kompetenz)'과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마이네리티로서의 국제결혼주체만이 아니라 일반 메이저리티(Majority)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생애성이나 생애사적 능력에 주목하여, 이를 발굴·강화시키는 사회복지실천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민경. 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통권 제 70호): 10-103.
-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8.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박경동. 2008.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8: 140-174.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박재규.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123-128.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양영자. 2010.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323-351.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8) 알하이트(Alheit)는 생애성이 우리가 살며 보내는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콘텍스트를 가시화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생애성의 개념은 각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맞닿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 42(2): 72-103.
- 윤형숙. 2005. 2010.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109-1211.
- 채옥희·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Ackermann, F. and S. Owczarski. 2000. “Soziale Arbeit zwischen Allmacht und Ohnmacht. Eine exemplarische Fallrekonstruktion zur Logik sozialarbeiterischen Handelns.” pp. 321-344. in *Die Fallrekonstruktion. Sinnverstehen in der sozialwissenschaftlichen Forschung*, edited by K. Kraimer.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Alheit, P. 2003. “‘Biographizität’ als Schlüsselqualifikation. Plädoyer für transitorische Bildungsprozesse.” QUEM-Report, 78: 7-21.
- Alheit, P. and B. Dausien. 2006. “Biografieforschung in der Erwachsenenbildung.” pp. 431-45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f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2. überarbeitete und aktualisierte Aufl.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Glick-Schiller, N., L. Basch and C. Blanc-Szanton.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pp. 1-24. in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edited by N. Glick-Schiller, L. Basch and C. Blanc-Szanton.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Band 645.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Kraimer, K. 2003. “Zwischen Disziplin und Profession. Ein Beitrag zur fallrekonstruktiven Erforschung der professionalisierten Praxis am Beispiel der ‘Hilfen zur Erziehung.’” pp. 167-183. in *Qualitative Forschung in der Sozialpädagogik*, edited by C. Schweppe. Opladen: Leske + Budrich.
- Mayring, Ph. 2002.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Weinheim; Basel: Beltz Verlag.
- Rosenthal, G.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New York: Campus Verlag.
- Rosenthal, G., and W. Fischer-Rosentahl. 2005. “Analyse narrativ-biographischer Interviews.” pp. 456-468. in *Qualitative Forschung. Ein Handbuch*, edited by U. Flick, E. von Kardorff, and I. Steink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 Schütze, F. 1983. “Biograf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 283-293.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pp. 78-117. in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edited by M. Kohli and G. Robert. Stuttgart: Metzler.
- Schütze, F. 2006.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 pp. 206-23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Wiesbaden: VS Verlag Sozialwissenschaften.
- Smith, M. P. and L.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Thiersch, H. 2002. "Biographieforschung und Sozialpädagogik." pp. 142-156. in *Biographische Arbeit. Perspektiven erziehungswissenschaftlicher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M. Kraul and W. Marotzki. Opladen: Leske + Budrich.

## A Biographical 'Caseunderstanding' on the Agency of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s

Yang, Yeung-Ja  
(Kyungnam University)

Through the biographical approach,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reconstruct the Agency of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s. Eight interviews were conducted, grounded on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chütze's analysis of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and Rosenthal's analysis of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 Findings showed the following: Whereas they were objectified as multiple-marginalized from an outsider's standpoint, they were represented as subjects with the agency. Despite the work status of their being marginalized, the agency was at work that drove the self-initiative in their working life. In their family life the agency was also at work that positioned themselves as subjects of transnational family, which was geared toward multiculturalism from below. Additionally, they have had the agency that found themselves in the position of subjects, rejecting uniformity at school. For the practice of social work, this paper finally addressed some implications that have flowed from the understanding of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s.

Key words: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 agency, transnational family, multiculturalism from below, biographical 'caseunderstanding'

[논문 접수일 : 10. 10. 04, 심사일 : 10. 10. 13, 게재 확정일 : 10. 12. 14]